

GWANGJU BIENNALE 2012 SEPTEMBER 7 - NOVEMBER 11, 2012

Round Table

제9회 광주비엔날레 D-30

절반 이상이 신작... 첫 관람 설레고 기대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미술축제인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미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비엔날레에는 40개국 9대륙(팀)이 참여,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이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문화·사회적 담론을 펼쳐 보이게 된다. 이 기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 광주극장 등 광주 곳곳이 세계 미술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현대미술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7월 국내외의 주요 미술계 인사 등 600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한편, 전시관 공간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

는 등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의 작품이 다음주부터 전시관에 반입돼 설치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에 머무르며 작업을 진행할 작가들의 광주 방문도 잇따를 예정이다.

◇아이웨이웨이 등 스타 작가 '신상' 전시 =올해 참여작가 92명(팀) 중 45개 작품이 광주비엔날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이다. 신작 비중이 이전 비엔날레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스타 작가들이 많은데다, 쉽고 재미있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신작'을 맨 처음 관람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세계적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는 비엔날레 주제에 맞춰 자신의 미학적이면서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비엔날레 전시관 벽면에 생중계한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밤 높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아이웨이웨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글을 올리며 비엔날레를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과 소통하게 되는 셈이다.

국내 대표 설치미술가 서도호씨도 대인시장, 가톨릭대 기숙사, 광주극장 사택을 프토타주 기법으로 신작을 내놓으며 마이를 주는 시위 집결장 방패 100개를 이용해 5·18 민중항쟁, 웰스트리트 점령 시위 등을 다루게 된다.

도 눈에 띄는 신작이다.

첼시플라워소에서 2관왕을 한 황지해 작가는 비엔날레 옹보습지에 자연 순환이 가능한 생태계를 담은 '비옴 설치조형물'을 만든다.

◇광주 전역이 현대미술 축제의 장으로 = 김선정 비엔날레 공동책임감독은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만나질만 전시를 둘러보고 떠나가는 게 아닌,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시 공간이 광주비엔날레 내부 전시관에서 벗어나, ▲지역 내 유일한 향토극장으로 77년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뿔뿔한 광주극

'광주 폴리' 비엔날레재단서 운영

시민협업체 구성... 시에 예산 7000만원 요청

지난해 광주 구도심에 설치된 유명 건축가들의 조형 작품인 '광주 폴리(Folly)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7일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문화재단이 맡았던 폴리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비엔날레가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엔날레는 또 폴리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 업무도 맡아 추진키로 했다.

비엔날레재단은 이에따라 광주시에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7000만원을 요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폴리 추진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민협의체는 총장로상인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교류문화재단 등 11명의 지역

사회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가 포함됐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폴리는 관리나 보수보다는 활성화 등 경영 차원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폴리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폴리(Folly)는 광주 도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공 조형물을 조성, 문화 자산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해 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돼 11개가 설치돼 있다. 올해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미술가 서도호씨의 '틈새호텔'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어설픈 웨이터들 어설픈 연극도전



9월2일까지 기분좋은 극장

어설픈 웨이터들의 연극 도전기를 그린 유쾌한 연극 '나이트 로맨스'가 공연된다. 9월2일까지 광주시 서구 우체국 보훈 기분좋은 극장.

광주MBC가 진행하는 '연극이 좋다' 시리즈로 공연중인 '나이트 로맨스'는 얼떨결에 연극 콘테스트에 출전하게 된 웨이터들의 좌충우돌 도전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연극의 메카인 서울 대학로에 자리잡은 나이트클럽. 연극인들의 파업으로 클럽에는 파리만 날리고, 불황을 극복하려 애쓰는 이들 앞에

대학로 상가들이 주최하는 '연극 콘테스트' 전단지만 날아든다.

스타일에 죽고 스타일에 사는 장동건, 부끄럼쟁이 지배인 강철, 화끈한 웨이터 핫바지와 나이트 클럽에 일하러 찾아온 추파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리기로 한다.

하지만 로미오가 된 장동건은 스타일 유지하느라 바쁘고, 고음볼기인 핫바지는 노래를 전혀 소화해내지 못하는데...

클럽을 배경으로 한 작품답게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문창완·원종철·김장동·이정식·박선혜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가격 전석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기자 mekim@



설치미술가 서도호씨가 가톨릭 기숙사 방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탁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탁본 프로젝트'는 방 전체를 종이로 덮고 연필로 문지르면서 사라져가는 공간의 기억과 시간의 흔적을 고집어내는 작품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라운드 테이블' 주제로 40개국 92명 작가 참여

초청장 발송·전시관 배치·도슨트 교육 등 준비 순조

김범 작가는 종이찰흙으로 빚은 통닭 모양 작품 12개를 만들어 판매회 전액 수익을 통닭 쿠폰으로 바꿔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계획을 담은 작품 '조각작 조립밥'을 선보이고 쉐 샤오시옹, 김홍석, 오자와 초요시 등 일본·중국·한국작가들은 '웰컴 투 시장'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상의 도시 및 이민구 사무실이 만들어질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페드로 레예스는 전 세계에서 기증받은 총기 수백 정으로 약기 10여개를 만들어 퍼포먼스를 진행해 폭력과 무기거래의 추악함을 비판하는 작품을 내놓는다. 태극 작가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본단의 상징이면서 DMZ를 의미하는 둥근 탁구대를 소재로 한 작품을 1990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미국 출신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는 서구문화센터 전광판을 활용, 텍스트로 메시지를 전하는 신선한 작품을 각각 내놓는다.

90년대 지존과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급격한 도시화에 휘말린 한국 근현대사를 담겠다는 정윤석씨의 '논 픽션 다이어리', 5·18민중항쟁의 생존자, 언론인, 영화 제작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와 도시 상황을 영상·설치 작품으로 표현하는 대만출신 작가 투웨이씨의 '순속임-도시 속 인문주의적 정신'

장 ▲도심 속 녹색 공간에 자리잡은 '사색과 여유의 공간' 무각사 ▲소박한 삶의 풍경이 배어있는 '문화시장' 대인시장 ▲지역 대표적 미술관인 시립미술관 ▲중외공원 ▲서구문화센터 등 광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의 역사상, 특수성과 도시 흔적을 담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비엔날레를 통한 광주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도이기도 하다.

◇도슨트, 자원봉사자 '순심맞이' 분주 = 비엔날레 기간 관람객들의 전시해설을 도울 도슨트(docent), 이른바 '전시해설가' 36명도 최종 선별돼 폭염 속에서 교육이 한창이다. 이들은 6명의 공동 감독으로부터 비엔날레 기간 전시될 작품 및 작가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비롯, 80시간에 걸쳐 현장 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거쳐 난해한 현대미술을 설명해주는 전시해설가로 활동하게 된다.

비엔날레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도 선발돼 개막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에 선발된 자원 봉사자들은 통역도우미, 행사 진행요원 등 5개 분야 100명으로 예년에 비해 30대 이하 젊은층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이들은 오는 9월 4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서비스' 2기 단원 모집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는 '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서비스' 2기 단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색소폰, 클라리넷, 플루트며 모집 인원은 분야별로 20명이다.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 2회, 회당 2시간씩 정기적인 연습을 진행하고 정기공연과 외부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2만원을 부담하면되며 접수신청은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마감은 20일.

'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북구가 지원하고 있으며 첫 해인 지난해에는 창단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4차례 공연을 가졌다. 문의 062-226-2030.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B (Korea Job Bank) celebrating 30th anniversary with a 30% OFF SALE. Includes logos for various countr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Seoul, Busan, and Gwangju.

Advertisement for Megabox movie theater. Features a list of movies like 'The Dark Knight Rises' and 'The Last Airborne' along with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wangju branch.